

「聖學十圖」주석과 朝鮮후기 退溪學의 전개**

琴 章 泰*

• 目 次 •

I. 序- 「聖學十圖」와 韓國사상사	의 다양성
II. 「聖學十圖」의 구조와 사상	IV. 「聖學十圖」주석과 退溪學의 전개
III. 「聖學十圖」에 대한 주석·應用	V. 結語

I. 序—「聖學十圖」와 韓國思想史

「聖學十圖」는 1568년 퇴계 이황(1501~70) 선생이 17세의 少年王(宣祖)에게 학문과 수양의 핵심과 요령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드렸던 한 권의 작은 책자이다. 이 책에는 송~원대 이래 정주학파의 저술 속에서 10개의 圖象과 해설을 선택하여 수록하고 있다. 퇴계는 이 「聖學十圖」를 王에게 바치면서, 『내가 나라에 보답함은 이 圖에 그칠 뿐이다』라고 하였다 한다.¹⁾ 그만큼 「聖學十圖」는 퇴계가 만년에 성취한 원숙한 학문적 안목의 결실이며, 따라서 聖學의 방법과 체계를 가장 집약적이고 함축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퇴계가 그 이후의 유학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병행하여, 「聖學十圖」도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48호(1985) 게재논문

1) 「宣祖實錄」, 元年(戊辰)12月朔, 『李滉進筭 上聖學十圖, ……爲此圖以進曰吾之報國止此圖而已』

조선후기를 통하여 많은 유학자들에 의해 주석되고 논의되었으며, 또한 응용·확장되었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聖學十圖」주석에 대한 이해는 퇴계학의 전개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되며, 아울러 조선후기 한국사상사연구의 한 과제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에서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聖學十圖」연구의 성과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몇가지 퇴계학 및 한국사상사의 문제들을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첫째는 「聖學十圖」연구가 한국사상사와 퇴계학의 전개과정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둘째는 그 전개과정에 깃들여 있는 철학적 문제의 성격은 무엇인가, 셋째 「聖學十圖」연구는 한국 사상사에서 어떤 기능과 특성을 갖는가라는 문제이다.

「聖學十圖」는 대부분 중국 宋·元대의 저술을 자료로 삼고 있지만 한국사상사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깊다. 이 「十圖」의 제4圖인 <大學圖>는 陽村 權近의 「入學圖說」(1390)에 들어 있는 <大學指掌之圖>를 끌어온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陽村의 경우를 비롯하여 한국유학사 속에는 학문의 체계와 구조를 圖象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하나의 전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물론 河圖·洛書와 易卦圖·洪範圖를 거쳐 周濂溪의 <太極圖說> 등 중국역대의 圖象은 조선시대 圖象의 준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상사에서는 첫째 圖象에 대해 특별히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나, 둘째 이러한 관심 속에서 많은 창의적인 圖象이 나왔던 사실에 뚜렷한 특징이 있다. 陽村의 「入學圖說」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유학체계의 입문서로서 19개의 圖上과 해설로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퇴계와 고봉 기대승 사이에 일어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적 논쟁인 《사단칠정론변》도 鄭之雲이 그린 <天命圖>를 퇴계가 몇 구절 수정하는 데서 발단하고 있다.²⁾

조선시대에서의 圖象은 퇴계의 「聖學十圖」가 제시됨으로써 그 전형을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聖學十圖」는 왕실에서 역대군왕이 병풍으로

2) 퇴계선생문집 권 41, <天命圖說後叙, 附圖>(1553), 참조.

만들거나 서첩으로 만들어 항상 곁에 놓고 궁리·體認하는 典範으로 삼았고, 경연에서는 거듭 강의되는 교재이었으며, 왕명에 의해 印本으로 頒行되기도 하였다.³⁾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17세기부터 20세기 전 반까지 「聖學十圖」에 대한 많은 주석이 나오고 응용한 圖象들도 나오고 있는 사실이다. 조선시대 유학자에 의한 저술로서 「聖學十圖」처럼 많은 주석본이 있는 책은 없다. 그리고 그 주석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한국철학사의 중요문제이고, 문제의 심화는 곧 퇴계학의 발전사를 지시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서는 「聖學十圖」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한다. 李相殷교수의 『聖學十圖譯解』(1974)는 한글로 번역하고 해설함으로써 한문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현대의 한국인에게 「聖學十圖」에 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또 하나의 업적으로 일본에서 高橋進교수는 『李退溪思想の體系的構成—「聖學十圖」を中心として』(1984)에서 敬을 중심으로 하는 퇴계사상의 본질적 특성을 해명하면서 「聖學十圖」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 분석을 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미국에서 Michael C. Kalton 교수는 『To Become A Sage—The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by Yi (T'oegyŏ)』(1988, Columbia University Press)에서 「聖學十圖」를 영어로 번역하였으며 각장에 총 47항의 주석을 부가하여 서론과 더불어 퇴계학연구에 또 한 걸음을 진전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업적들 속에서 「聖學十圖」는 퇴계학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한국사상사연구의 의미깊은 주제의 하나임을 확인하게 된다.

3) 조선왕조실록에서 ① 「聖學十圖」를 屏風·書帖·印本으로 만든 사실의 기록, 선조2년(1659)·광해군2년(1610)·同5년(1613)·인조원년(1623)·숙종6년(1665)·영조31(1755)·정조(1799)등이 있고 ② 經筵에서 王앞에 강의한 記事로 숙종7년(1666)·영조22년(1746)등이 있다.

II. 「聖學十圖」의 構造와 思想

「聖學」은 정주학파의 학통에서 道學·理學·실학·心學等으로 부르는 유학의 학풍에 대한 또하나의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은교수에 의하면 성학이란 명칭에는 「聖人の學」과 「聖王之學」(帝王學)이라는 두가지 의미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라 지적한다.⁴⁾ 그러나 「聖人(또는 聖王)을 배우는 학문」이란 뜻과 「聖人(또는 聖王)이 되기 위한 學問」이란 두가지 의미를 구분해 보면서 그 두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성격도 밝힐 필요가 있다. 퇴계는 이 「聖學十圖」속에는 『도를 깨달아 성인되는 요령(凝道作聖之要)과 근본을 바로잡아 정치를 경륜하는 근원(端本出治之源)이 모두 갖추어 있다』(<進聖學十圖筭>)고 강조하면서 성인이 되는 것을 성학의 목표로 확인하였다.

퇴계에 의하면 성학(聖門之學)에는 「心」(주체)과 「事」(대상)의 두 영역이 상대되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인간의 두가지 활동으로서 「思」(사유)와 「學」(실천)이 상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며, 이 두 활동이 서로 발전시키고 서로 유익하게 하는 조화를 곧 성학이라 규정한다.⁵⁾ 여기서 그는 주체인 心과 대상인 事를 상대시키면서도 한걸음 나아가 주관성인 「心」과 보편성인 「理」가 상대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것은 인간을 주재하는 내적 존재인 心을 중심으로 하여 그 心의 대상으로 위로는 궁극세계인 理와 상대되며 아래로는 일상세계인 事와 상대하는 세계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事와 理의 대상적 영역사이를 결합시키고 일치시키는 중심은 바로 인간의 心이며, 이 心을 주재하는 원리가 敬이라 한다.

퇴계는 敬이 「思와 學을 겸행하고, 動과 靜을 일관시키며, 內와 外를

4) 李相殷, <聖學十圖解釋>, 「退溪學報」 제2집, 1974. 3, p.105.

5) 퇴계선생문집, 권7, <進聖學十圖筭> 『蓋 聖門之學, 不求諸心 則昏而無得, 故必思以通其微, 不習其事, 則卷而不安, 故必學以踐其實, 思與學, 交相發而互相益也.』

통합시키고, 顯과 微를 일치시키는 원리』⁶⁾라 하여, 敬을 통합과 일관의 원리로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敬의 통합적 기능을 실현하는 방법은 속으로 마음을 지키는데(存心)에서나 밖으로 이치를 탐구하는데(窮理)에서나 敬을 관철하는 것이요, 인간에게서 敬을 지키고 성학을 실천하는 노력이 축적되면 「心和 理가 서로 포함하여 융통하게 되고, 찢과 사가 서로 익숙해져서 순탄하게 되어」⁷⁾ 마침내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학은 성인에까지 이르는 목표와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聖學十圖」의 10圖와 說은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太極圖> 圖와 圖說-周濂溪作.
- ②<西銘圖> 圖-程復心作. 銘-張橫渠作.
- ③<小學圖> 圖-퇴계作. 題辭-주자作.
- ④<大學圖> 圖-권근作. 經-孔氏遺書.
- ⑤<白鹿洞規圖> 圖-퇴계作. 後叙-주자作.
- ⑥<心統性情圖> 圖(上圖-程復心作, 中圖 및 下圖-퇴계作). 圖說-程復心作.
- ⑦<仁說圖> 圖와 說-주자作.
- ⑧<心學圖> 圖와 圖說-程復心作.
- ⑨<敬齋箴圖> 圖王柏作. 箴-주자作.
- ⑩<夙興夜寐箴圖> 圖-퇴계作. 箴-陳柏作.

퇴계자신은 이 10圖의 구성에 철학적 체계와 교육적 체계의 2가지 구조적 형식이 내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첫째, ①~⑤의 前5圖와 ⑥~⑩의 後5圖로 2分の 분해를 한다. 그에 의하면 전5圖는 천도에 근본을 두고 인륜과 덕업을 실천하는데로 나가고, 후5圖는 심성에 근원하여 일용과 경외의 실천에로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전자는 규범의 초월적 기준을 발견하여 인격에 정착시키는 것이라면, 후자는 주체의

6) 同上, 『持敬者, 又所以兼思學, 貫動靜, 合內外, 一顯微之道也.』

7) 同上, 『至於積眞之多 用力之久, 自然心與理相涵 而不覺其融會貫通, 習與事相熟 而漸見其坦泰安履.』

내면적 기반을 발견하여 행동에 정착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전자를 天에서 부터 인간으로 내려오는 길이라 한다면, 후자를 인간의 속에서 밖으로 뻗어나오는 길이라 하겠다. 따라서 「聖學十圖」의 전체는 천도와 심성의 두 근원이 인간주체를 결합점으로 상호작용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성학에 있어서 心과 理가 상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곧 「聖學十圖」는 성학의 범위를 이루는 우주와 인간의 상호관계로서의 세계구조를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③·④를 중심으로 삼으면서, ①·②를 그 극치의 자리로서 표준과 본원이라 하며, ⑤~⑩의 6圖를 用力하는 자리로서 田地와 事功이 된다는 3分の 분해를 한다. 곧 10圖의 중심을 이루는 ③小學과 ④大學은 유교 교육에서 기본경전적 위치를 갖고 있으며, 유교의 규범체계와 실천방법에서부터 유교적 인격의 실현과정을 그 출발점에서 목표까지 포함하고 있다. 퇴계는 「소학이 대학의 기본이 되고, 대학은 소학의 성공을 이룬 것이라」는 주자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소학과 대학의 이 기본과 성공의 관계로 상대되면서 일관되는 관계를 강조하였다.⁸⁾ 또 한 가지 주자가 敬을 성학의 시작과 종국이라 지적하고 소학과 대학의 실천도 敬에 근거한다고 주장한 것을 퇴계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敬을 「聖學十圖」의 핵심이요 전체를 일관하는 원리로 삼고 있는 입장을 밝혔다.⁹⁾ 여기서 소학·대학을 중심으로 하고 그 표준의 원리와 실천의 성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聖學十圖」를 인간완성의 교육적 체계와 실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곧 성학은 첫째의 2分적 분해는 우주와 인간의 세계구조를 보이는데 비해, 둘째의 3分적 분해는 인간이 성인을 향한 자기완성의 방법과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곧 전자는 철

8) 「聖學十圖」, <第三小學圖>, 『或問……是以方其幼也, 不習之於小學, 則無以收其放心 養其德性, 而爲大學之基本, 及其長也, 不進之於大學則無以察夫義理, 措諸事業 而收小學之成功.』

9) 同上<第四大學圖>, 『敬者又徹上徹下, 著工收效, 皆當從事而勿失者也, 故朱子說如彼, 而今茲十圖, 皆以敬爲主焉.』

학적 구조라면 후자는 교육적 구조로 대조시켜 볼 수도 있겠다.

Ⅲ. 「聖學十圖」에 대한 註釋·應用的 多樣性

(A) 「聖學十圖」에 대한 퇴계이후 유학자들의 논의와 주석은 그 유형을, ㉑가장 단순하게는 「聖學十圖」의 전체적 의미나 가치를 언급하는 논평, ㉒10圖중 어떤 圖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하면서 퇴계의 입장이나 관련성을 언급하는 것, ㉓10圖중 어떤 圖에 대한 체계적인 주석을 하여 「聖學十圖」를 발전시킨 것, ㉔ 「聖學十圖」에 대해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주석을 한 것 등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B) 「聖學十圖」의 영향이 뚜렷한 현상으로서 이를 응용하여 자신의 圖象體系를 이루는 경우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운데는 ㉑聖學十圖의 체계를 그대로 모방한 유사형의 圖도 있고, ㉒聖學十圖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圖에서도 그 영향의 자취를 쉽게 추리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덧붙여 「聖學十圖」와는 독립된 경우라도 이와 비교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자료는 취하였다. (다만 자료는 圖를 표제로 한 저술을 중심으로 하고 서한 등에서 논의된 것은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A)의 「聖學十圖」에 대한 논의와 주석으로 ㉑-1, 퇴계의 문인인 曹好益(號芝山, 1545~1611)은 <題聖學十圖說>에서 제6心統性情圖에 나타난 程復心の 五端說 즉 信에 상응하는 端으로 誠實之心을 제시한 것에 대해 주자가 信에 대한 情을 忠信으로 언급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근거있음을 해명한 것이다.¹⁰⁾ 퇴계문하에서 聖學十圖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오단설이 문제되었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㉑-2, 숙종의 명으로 홍문관에서 「聖學十圖」를 필사할 때 吳道一(號西坡, 1645~1703)이 1681년에 지은 跋文이 있다. 그는 「聖學十圖」에서는 천인성명의 근원을 발휘하였고 학문공정의 요령이 추구되었다고 밝혔다. 천

10) 曹好益, 「芝山集」 권5, <題聖學十圖說>.

명과 인성의 본체적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인식과 학문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교육적 지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는 「聖學十圖」의 各圖가 지닌 핵심문제를 규정하면서 2개圖씩 짝을 이루는 구조로서 파악한다. 곧 ①圖는 음양조화의 原을, ②圖는 一本萬殊의 理를 밝힌다. ③圖는 收心·양성의 기본이고, ④圖는 修己·治人の 綱要다. ⑤圖는 作興道迪의 方을, ⑥圖는 危微선악의 幾를 말한다. ⑦圖는 측은의 端을, ⑧圖는 존양의 公을 보여준다. ⑨圖와 ⑩圖는 踐履·持守의 方과 折旋·동작의 節을 하여 성학의 시작과 끝이 敬을 넘지 않음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은 퇴계가 ⑤~⑩圖사이에서 各圖의 관계를 설명한 것에 세부분석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¹¹⁾ ㉑-3, 南萬會(1816~1886)가 자기 문인이 「聖學十圖」의 필사본을 만드는데 붙여준 발문은 당시 학자들 사이에 「聖學十圖」를 필사하여 소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¹²⁾ ㉑-4, 丁大秀(1882~1959)는 1955年 <敬題聖學十圖後>에서 「聖學十圖」를 「上下古今通讀之寶鑑」이라 언급하면서 의문점도 지적하고 있다.¹³⁾ 여기서 정대수는 기호학파의 정통적 입장을 지킨 艮齋田愚의 제자이라는 사실에서 기호학파에 미친 퇴계의 영향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A)의 ㉑에 해당하는 경우로, ㉑-1, 소론의 대표적 학자인 南溪 朴世采(1632~95)는 程復心の <心學圖>에 대한 퇴계와 율곡의 해석을 비판하면서 이를 수정하여 <刊定林隱程氏心學圖>(문집 권53)를 그렸다. ㉑-2, 田愚 문하인 崔秉心(1874~1957)은 자신의 <學規圖>를 만들면서 퇴계의 <白鹿洞規圖>에다 <呂氏鄉約>의 구절을 첨가하였다.¹⁴⁾

(A)의 ㉒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히 ㉒<心統性情圖>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㉒-1, 宋寅護(號, 觀岳, ?~1889)는 「心統性情圖發揮」를 편찬하여 程朱學統諸儒의 저술과 퇴계의 서한에서 논의된 心性體用·중

11) 吳道一, 「聖學十圖跋」.

12) 南萬會, 「小溪集」 권3, <題趙君性初書聖學十圖後>.

13) 丁大秀, 「陽泉遺稿」 권6. <敬題聖學十圖後>.

14) 崔秉心, 「欽齋集 前編」 권14, <學規圖>.

화·四七의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들 및 按說을 수록하였다. ㉠-2, 宋浚弼(호, 恭山, 1869~1943)은 「心統性情三圖發揮」(4권, 1928作)에서 경전과 정주학통제유의 저술과 퇴계 및 퇴계학통인 大山 李象靖의 저술에서 관련주장을 뽑아 수록하며 종합하는 按說을 첨부하였다. ㉠-3, 鄭經世의 문인으로 퇴계학통인 柳元之(?~1674)는 ㉠<心統性情圖>중에서 퇴계가 그린 中圖·下圖와 율곡의 <心性情圖>를 대비시키면서 율곡설을 비판하는 사철이기설을 논하고 있다.¹⁵⁾ ㉠-4, 丁時翰(1625~1707)도 퇴계의 중·하2圖와 율곡의 <心性情圖>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¹⁶⁾ ㉠-5, 鏡城에 사는 崔斗柄(1663~1726)도 21개의 圖象 체계를 구성하면서 퇴계의 중·하와 율곡의 圖를 수록하면서 각각 논평하고 있다.¹⁷⁾ ㉠-6, 尤菴私淑학통인 姜碩慶(1666~1731)은 퇴계의 ㉠圖와 율곡의 圖를 모두 비판하면서 자신의 <心性情理氣脉絡圖>를 제시하여 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¹⁸⁾ ㉠-7, 李象靖(1710~81)은 10圖중 ㉠圖를 원나라 吳澄의 분류에 따라 10章으로 나누고 정주학통제유와 퇴계의 논설에서 발췌하여 「敬齋箴集說」(1750)을 편찬하였다. ㉠-8, 1568년 퇴계와 거의 같은 시기에 盧守愼(호, 蘇齋, 1515~90)은 「夙興夜寐箴」을 8章으로 나누어 주석하였는데 1746년 영조의 어명으로 간행할 때에는 첫머리에 퇴계의 「夙興夜寐箴圖」를 실고 있는 사실도 보인다. ㉠-9, 퇴계학통인 張福樞(호, 四未軒, 1815~1900)는 ㉠圖를 퇴계의 圖와 盧守愼의 註 및 그밖에 정주학통의 諸儒와 퇴계를 비롯하여 李象靖 등의 논설을 이끌어 7章으로 주석한 「夙興夜寐箴集說」(1866)을 저술하였다. ㉠-10, 기호학파의 柳重教(호, 省齋, 1832~93, 華西 李恒老 문인)는 ㉠·㉠圖만 골라서 간략한 해설을 붙이고 있다.¹⁹⁾

15) 柳元之, 「拙齋集」 권8, <理氣說>(1670作)

16) 丁時翰, 「愚潭集」 권7, <四七推原>.

17) 崔斗柄, 「坪菴集」 권2.

18) 姜碩慶, 「喫眠窩集 別集」, 권2.

19) 柳重教, 「省齋集」 권30, <題敬齋箴夙興夜寐箴二圖後>(1883).

(A)의 ㉔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㉔-1, 寒洲 李震相 문인인 許愈(호, 後山, 1833~1904)는 先行의 주석들을 종합하면서 특히 스승인 이진상의 心卽理說에 입각한 퇴계설의 해석을 수록하는 「聖學十圖附錄」(2권, 1903作)을 편찬하였다. 그의 서한에서는 당시 이진상의 문하에서는 蔡寅默과 文昌錫도 성학십도의 주석을 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인다.²⁰⁾ ㉔-2, 퇴계학통인 定齋 柳致明의 문인 權胄煥(1825~93)은 「聖學十圖」의 각 圖별로 의문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聖學十圖疑義>를 지었다.²¹⁾ ㉔-3, 퇴계의 10대손인 古溪 李彙寧(1788~1861)이 「聖學十圖集說」을 지었다 하나 확인되지 않았다.²²⁾ ㉔-4, 田愚의 문인인 佩弦 金鍾昊(호, 佩弦, 1874~?)는 「聖學十圖集註」를 편찬하였지만 유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²³⁾ ㉔-5, 주석은 아니지만 실학과에 속하는 黃胤錫(호, 頤齋, 1729~91)의 저술인 「理數新編」에는 그 자신의 분류체계에 따라 「聖學十圖」가 각각 흩어져 수록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B) 「聖學十圖」를 응용한 도설로서 ㉔의 체계적 응용의 경우로 ㉔-1, 퇴계학통의 金秉宗(호, 秀山, 1871-1931, 西山 金興洛 문인)은 「聖學續圖」(1917)를 지었다. 그는 ①<太極圖說圖>, ②<小學題辭圖>, ③<大學經一章圖>, ④<中庸圖>, ⑤<鄉黨篇圖>의 前五圖와, ⑥<好學論圖>, ⑦<東銘圖>, ⑧<四勿箴圖>, ⑨<心經贊圖>, ⑩<屏銘圖>의 後五圖로 구성하고 있다. 이 10圖는 퇴계의 「聖學十圖」에 대한 연속이요 보충적 전개를 시도한 것이다. 그는 전혀 자신이 만든 圖象을 제시하여 창의성을 보이고 있다. 前五圖는 의리의 原을 보이는 것이라 하여 바둑판(碁盤)에 비유하고, 後五圖는 학문의 功을 보이는 것이라 하여 사람이 바

20) 許愈, 「后山集」권4, <興朴光遠>, 『方與殷老(蔡寅默) 欲爲聖學十圖集說……』 同上 권8, <答文士憲(昌錫)>, 『前說 聖學十圖編集 果能留意, 則甚善……』

21) 權胄煥, 「琴棲遺集」권4, <聖學十圖疑義>.

22) 李彙寧, 「古溪集」권8, <附錄, 墓碣銘>, 『又曰吾先祖四 七理氣說 所以承朱子之說……遂輯古聖賢要訓編爲十圖集說』

23) 權純命, 「陽齋集 附錄」, <年譜>, 丙子(1936)7月條, 『金佩弦集諸家說之發明 十圖者爲集註.』

독을 두는 것(人下棊)에 비유한다. 그리고 前五圖를 천도에 근본하고 의리의 표준이라 밝히며, 後五圖를 심성에 근원하고 학문의 절도라 밝힘으로써, 천도와 심성으로 상대시켜 파악하는 퇴계의 성학개념을 계승하고 있다. 또하나의 특징적인 사실은 ⑩<屏銘圖>는 퇴계가 요·순에서 주자까지 도통의 心法을 제자 鶴峯 金誠一에게 지어준 <屏銘>을 圖象化하여 실고 있는 점이다. ㉑-2, 金槐(號, 重齋, 1896~1978; 侑宇 郭鍾錫 문인)은 「經學十圖」(1946)를 지었다. 그것은 ①周易圖 ②書圖, ③詩圖, ④春秋圖, ⑤禮圖의 5經圖와 ⑥論語圖, ⑦孟子圖, ⑧中庸圖, ⑨大學圖, ⑩小學圖의 5書圖로 구성되어 있다. 10圖의 구조는 「聖學十圖」에서 영향을 받고 응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㉑-3, 李東幹(호, 砧山, 1757~1822)의 「聖賢心學四圖說」(1805)은 聖學圖가 아니라 心學圖라는 좀더 범위를 좁힌 것이지만, ①<二帝三王傳心圖>, ②<五聖傳心圖>, ③<程朱兩賢心學圖>, ④<退溪先生心無體用辯圖>의 4圖중에서 퇴계의 저술인 <心無體用辯>을 포함한 心學4圖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㉑-4, 이진상(호, 寒洲, 1816~1886)은 한말 영남의 대표적 유학자로서, 자신의 심즉리설을 정당화하는 근거의 하나를 <聖學十圖>의 ⑥<心統性情圖>中圖에서 확인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心經竅啓」속에서 ①<心經章圖>, ②<心經贊圖>에서 ⑬<好學論圖>, ⑭<明誠箴圖>까지의 20圖를 그려서 心學圖의 집성을 기도하고 있다.²⁴⁾ ㉑-5, 李堯默(호, 篁巖, 1809~1852)은 「聖學圖十二帖屏說」에서 ①八學圖說부터 ⑫中和圖說까지, 주렴계·주자·黃榦의 논설과 주역·중용의 經에서 취하여 12圖의 성학도상체계를 구성하고 있다.²⁵⁾ ㉑-6, 실학파의 대표적 인물의 한사람으로서 퇴계를 사숙하는 李瀆(호, 星湖, 1681~1762)은 「聖學十圖」의 ⑥<心統性情圖>와 ⑩<夙興夜寐箴圖>에 비교해 보면 새롭게 해석한 내용의 圖와 說을 지어 「聖學十圖」의 새로운 응용양식을 보여준다.²⁶⁾ 이익의 圖解에 대해서 權相翊(호, 省齋, 1863~1934, 西

24) 李震相, 「求志錄」 권22(寒洲全書 第5冊), <心經竅啓>.

25) 李堯默, 「篁巖集」, <書聖學圖十二帖屏說>.

26) 李瀆, 「星湖集」 권41, <心統性情圖說> 및 <夙興夜寐箴說>.

山 金興洛 문인)은 이익이 心을 氣라 보아 퇴계의 입장과 어긋남을 비판하고 있다.²⁷⁾

(B)의 ㉞에 해당하는 단편적이고 간접적 응용의 경우로는 ㉞-1, 퇴계의 문인 李德弘(호, 艮齋, 1541~96)은 <心體用圖>·<爲學之圖>·<爲政之圖>·<夫婦有別之圖> 등의 圖解에서 성학의 圖象的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 ㉞-2, 尹鏞(호, 白湖, 1617~80)은 <帝舜人心道心之圖> 3圖를 그려 퇴계의 <心統性情圖3圖>에 비견해 볼 수 있다. ㉞-3, 李象靖은 <心動靜圖>를 그려서 心統性情的 문제에 대비되는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²⁸⁾ 이 문제는 이진상의 <心易動靜圖說>(1870)과 郭鐘錫의 <心易動靜圖說>(1870)과 郭鐘錫의 <心動靜圖說>(1891)에 의해 계속 토론되는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²⁹⁾ ㉞-4, 실학파의 인물인 安鼎福(호, 順菴, 1712~91, 이익문인)도 心說에 관하여 <心圖> 2圖와 <治心八藥圖>를 그리고 <東銘圖>도 덧붙이고 있다.³⁰⁾ ㉞-5, 퇴계학통의 金興洛(호, 西山, 1827~99, 定齋 柳致明 門人)은 <入學五圖>에서 성학의 방법과 과정을 체계화하고 있고, 정자와 주자의 格致說을 圖象化하고 이상정의 「敬齋箴集說」도 <敬齋箴集說圖>로 만들어 제시한다. ㉞-6, 권상익은 주자가 張栻에게 보낸 仁說을 논한 서간을 읽고서 <仁心圖說>(1884)을 만들고 있다. ㉞-7, 宋浚弼의 「四勿箴集說」(1934)은 <四勿箴>을 주석한 것으로서 「聖學十圖」에는 벗어나 있지만 <四勿箴>은 퇴계가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㉞-8, 許傳(號, 性齋, 1797~1886) 자신의 성학체계를 「宋堯錄」(10권, 1862)으로 편찬하면서 「宋堯錄」의 전체구조를 도상화하여 <天民敬德圖> 2圖를 그리고 있다. <天民敬德圖>는 許傳의 聖學圖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7) 權相翊, 「省齋集」 권7, <讀李星湖心說及心統性情圖說> 및 <讀李星湖心統性情解>.

28) 李象靖, 「大山集」 권39, <心動靜圖>.

29) 李震相, 「寒洲集」 권34, <心易動靜圖說> 및 郭鐘錫, 「俛宇集」 권127, <心動靜圖說>.

30) 安鼎福, 「順菴集」 권12, <橡軒隨筆上>.

IV. 「聖學十圖」주석과 퇴계학의 전개

먼저 「聖學十圖」에 대한 논의와 주석등이 보여주는 사상사적 성격을 밝힐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聖學十圖」가 정주학적 도학(聖學)체계를 圖象的方法으로 파악하고 제시하는 전통을 확립하였으며 그 典範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퇴계에 앞서서 저술된 朴英(호, 松堂, 1471~1540)의 「白鹿洞規解」나 盧守愼(號, 蘇齋, 1515~90)의 「夙興夜寐箴註解」(1568년 12월 印)도 「聖學十圖」의 各圖에 대한 주석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퇴계와 동시대의 석학인 曹植(호, 南冥, 1501~72)은 성학의 체계를 24개의 圖象으로 정리하였지만 「聖學十圖」의 간명하고 체계적인 구조에는 견주어질 수 없었다. 그만큼 「聖學十圖」의 위치는 당시대 모든 圖象을 압도하는 비중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聖學十圖」는 군왕에게 올려진 것이기도 하지만 퇴계학파의 초기에는 뚜렷하게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후반부터 18세기 초반에는 퇴계와 율곡의 性理說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지면서 사단칠정론 등 심성론의 쟁점에 대해 퇴계의 ⑥<心統性情圖>와 율곡의 <心性情圖>를 비교논변하는 논의들이 영남의 柳元之·丁時翰과 기호의 朴世采·崔斗柄·姜碩慶 등에 의하여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것은 영남학파와 기호학파의 양쪽에서 평행적으로 일어났던 사실로서 「聖學十圖」는 양학과 논쟁의 한 기본쟁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李象靖(大山, 1710~1781)을 거쳐서 19세기 후반부터는 「聖學十圖」에 대한 연구가 한층 본격적으로 심화되면서 두가지 양상으로 나뉘어진다. 그 하나는 「聖學十圖」의 各圖나 전체에 대한 주석이 이루어지고, 다른 하나는 「聖學十圖」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비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圖象으로 제시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전자는 「聖學十圖」연구의 심화과정이고 후자는 그 확산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정의 「敬齋箴集說」(1750년)이나 張福樞의 「夙興夜寐箴集說」(1866)은 居敬의 실천문제에 관한 ⑨·⑩圖의 주석이고, 宋寅護의 「心統性情圖發揮」와 宋浚弼의 「心統性情三圖發揮」(1928)는 심성론의 性理說에 관한 ⑥圖의 주석이다. 시기적으로도 수양론적인 ⑨·⑩圖의 주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엽에 걸치고, 성리학적인 ⑥圖의 주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친다. 그것은 영남학파 안에서도 19세기 후반에 江右에서 이진상(寒洲, 1818~1886)이 心卽理說을 주장하면서 ⑥圖를 통한 심성설의 철학적 토론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다. 「聖學十圖」의 전체를 주석한 4인물도 시기적으로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엽에 걸치고 李彙寧·權胄煥은 江左요, 許愈는 江右에 속하며 金鍾昊는 기호학파에 속하는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聖學十圖」의 확산과정으로는 江左의 이상정이 제시한 <心動靜圖>에 대하여 江右의 이진상·곽종석이 논의를 지속시켜 가는 경우가 있고, 尹鑄의 <人心道心圖>3圖·安鼎福의 <心圖>·李東翰의 <聖賢心學四圖>·李震相의 <心經圖>20圖·權相翊의 <仁心圖>등 心說에 관한 圖象들의 만발현상을 볼 수 있다. 또한 擴散은 十圖構造를 응용한 金秉宗의 「聖學續圖」(1917)나 金梶의 「經學十圖」(1946)등에서 무한한 적용력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은 20세기 전반에서 새로운 十圖를 만들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聖學十圖」에 관한 관심의 확산은 영남의 江左·江右의 범위를 넘어서 기호학파에서도 후기에 오면 훨씬 호의적이다. 李恒老 門下의 柳重教와 田愚門下의 金鍾昊·丁大秀에서 그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李漢·安鼎福·黃胤錫 등 실학파에서의 「聖學十圖」에 대한 관심도 의미가 있다.

「聖學十圖」에 대한 주석과 논의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 축적되어 갔으며 심화되고 체계화되어감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그만큼 퇴계학에 대한 인식수준도 향상되어 가고, 따라서 한국사상사 속에서 퇴계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圖象的 구조 속에 완결된 체계를 찾는 것은 사상이 개방된

논란보다 권위적 보수성에 정착하기 쉽다는 사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聖學十圖」에 관한 논의와 주석에 내재한 철학적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聖學十圖」와 관련된 퇴계의 철학적 문제로서 圖象의 논리와 敬의 수양론과 <心統性情圖>의 性理說을 구분해 볼 수 있겠다.

圖象은 핵심의 구조를 선명히 드러내는 것이며 모든 응용적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聖學十圖」의 구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퇴계는 「天道와 心性」 또는 「標準-學-事功」으로 대비시켜 밝힌데 비하여, 吳道一은 「天人性命과 學問工程」으로, 許愈는 「道理와 聖功」으로 대비시켜 파악하였다. 그것은 근원적 원리와 학문적 실천이라는 聖學의 기본적 영역이요 과제임을 밝혀준다. 聖學은 원리를 밝히는 인식의 문제와 실천을 수행하는 절차의 문제를 기본으로 한다. 여기서 원리요 표준도 인간의 실천에 적용되는 것이며, 실천의 방법과 절차도 인간의 자기실현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인간을 중심의 주체로 확립하는 것이다. 퇴계의 철학은 「聖學十圖」의 구조에서 이미 인간을 주체로 하는 철학적 전체를 드러내고 있다. 곧 인간을 주인으로하여 원리와 현실이 통합되고 있는 것이다. 金秉宗이 「聖學續圖」에서 의리의 근원을 바둑판에 비유하고 학문적 실천을 바둑두는 일에 비유하는 것도 그 주체가 인간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敬의 수양론적 실천은 「聖學十圖」의 일관된 주제다. 퇴계는 ①<太極圖>의 주해에서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敬을 강조하였고, 敬을 ③小學과 ④大學의 기반으로 삼으며, ⑨<敬齋箴圖>는 敬을 실천하는 地頭(處地의 경우들)를 밝히고, ⑩<夙興夜寐箴圖>는 敬을 실천하는 時分(때의 경우)을 섬세하게 밝히는 것이다. 「聖學十圖」의 各圖는 箴·銘·規 등 수양을 위한 訓戒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聖學은 敬의 실천으로서 일종의 수양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星湖(李瀾)학파의 權

哲身·丁若鏞·李承薰등이 1777(또는 1779)년 天真菴·走魚寺에서 열었던 講學會에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夙興夜寐箴을 외고, 일출때 敬齋箴을, 정오에는 四勿箴을, 日入때 西銘을 외는 수양적 실천이 철저하였다 한다.³¹⁾ 이러한 수양론은 극기적이고 엄숙한 수양론의 범위를 넘어서 天道에서 德業에 이르기까지 상하에 관철하는 궁극성 내지 경건성의 신앙적 영역과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양적 실천 규범이 圖象의 구조 속에 핵심원리로 제시됨으로써 퇴계학파는 사변적 논쟁이나 관념적 분석에 빠지기 보다는 인간의 품위를 고양시키는 수양론에 치중하는 특성을 엿볼 수 있다.

<心統性情圖>3圖에서 中圖와 下圖의 2圖는 퇴계자신이 그린 것이고 그의 심성론 체계가 가장 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中圖는 氣稟속에서 本然之性을 가리킨 것이고 下圖는 理와 氣를 습하여 말한 것이라 한다. 또는 그는 心을 정의하면서 「理·氣를 兼攝하고 性·情을 統御하는 것」이라 한다.³²⁾ 여기서 한말에 李震相이 心개념은 中圖에 퇴계의 본취지가 나타나 있다하여 심즉리설을 주장하자 江左에서는 퇴계자신이 「心은 理와 氣를 兼攝하는 것이다」라는 言明을 내세워 心合理氣說을 고수하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³³⁾ 문제는 ⑥圖의 中圖·下圖가 2관점을 제시한 것이고 따라서 퇴계의 입장이 心개념의 2형식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퇴계학의 심성설이 이분화된 것은 분열에 빠졌다고 하기보다 다양한 해석의 시각과 철학체계가 다변화하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퇴계학이 획일화된 폐쇄체계가 아니라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 준다는데

31) 丁若鏞, 「與猶堂全書」, 1集15卷 38張, 『嘗於冬月寓居走魚寺講學會者……鹿菴自授規程, 令晨起擲泳泉盥漱, 誦夙夜箴, 日出誦敬齋箴, 正午誦四勿箴, 日入誦西銘, 莊嚴恪恭, 不失規度.』 달레(Ch. Dallet)의 「韓國天主教會史」(安應烈·崔奭祐譯, 上冊, 300~301面)에 따라서 오늘날은 이 講學會를 韓國天主教信仰의 발단으로 보고 있다.

32) 「聖學十圖」, <第六心統性情圖>, 『要之兼理氣統性情者 心也』

33) 李震相, 「理學綜要」 권10, 45張. 李承熙, (「韓溪遺稿」六, pp. 172~3), <宣錄條辨>.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V. 結 語

성학십도가 퇴계학과 한국사상사에서 갖는 의미를 종합한다면 다음의 몇가지 성격을 들어볼 수 있다. 첫째, 聖學의 전체적 체계를 가장 핵심적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형식상으로 圖象的 구성이요 내용상으로는 퇴계학의 결정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聖學十圖」가 한국유학사 속에서는 심경·근사록에 견주어지기까지 하는 고전으로 존중되었다.³⁴⁾ 그것은 또한 퇴계학이 한국사상사 속에 차지한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聖學十圖」는 퇴계의 저술로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아 많은 주석·논의가 있었으며 퇴계학전개과정의 뚜렷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 넷째, 「聖學十圖」에 관한 주석·연구의 자료는 시대가 내려올수록 풍부하고 심화되며 한국철학사의 시대적 문제나 쟁점도 뚜렷이 드러내주고 있다. 다섯째, 「聖學十圖」는 극히 핵심적 요령의 집약인 만큼 폐쇄된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응용을 촉진하고 이끌어내는 개방적 학문체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와 장래에 있어서 퇴계학의 인식을 위해서나 계발과 새로운 전개를 위해서 「聖學十圖」가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믿는다.

34) 金秉宗, 「秀山集」 권5, <聖學續集> 『(聖學十圖)其規模力量, 直與心近諸書相爲表裏.』

부록 「聖學十圖」에 대한 주석·응용의 문헌

퇴계이후 「聖學十圖」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주석하며, 응용하거나 영향을 받은 관련문헌을 조사하여 분류·열거해 본다.

(A) 「聖學十圖」에 관한 논의나 주석

① 「聖學十圖」의 전체적 의미나 가치에 대한 간단한 논급.

1. 曹好益(號 芝山, 1545~1611, 퇴계문인)-〈題聖學十圖說〉(「芝山集」 권5)
2. 吳道一(號 西坡, 1645~1703)-〈聖學十圖跋〉(1681)
3. 南萬會(號 小溪, 1816~1886)-〈題趙君性初書聖學十圖後〉(「小溪集」 권3)
4. 丁大秀(號陽泉, 1882~1959; 艮齋田愚門人)-〈敬題聖學十圖後〉(1955) (「陽泉遺稿」卷6)

② 10圖中 어떤 圖에 대해 퇴계와 관련시킨 논의.

1. 朴世采(號 南溪, 1632~1695; 少論巨頭)-〈刊定林隱程氏心學圖〉(「南溪集」 권53)
2. 崔秉心(號 欽齋, 1874~1957, 田愚門人)-〈學規圖〉(「欽齋集前編」 권14)

③ 10圖中 어떤 圖에 대한 체계적인 주석.

1. 宋寅護(號 觀岳, ?~1889)-「心統性情圖發揮」
2. 宋浚弼(號 恭山, 1869~1943)-「心統性情三圖發揮」(4권, 1928)
3. 柳元之(號 拙齋, ?~1674, 愚伏 鄭經世門人)-〈理氣說〉(1670, 「拙齋集」 권8)
4. 丁時翰(號 愚潭, 1625~1707)-〈四七推原〉(「愚潭集」 권7)
5. 崔斗柄(號 坪菴, 1663~1726, 鏡城居)-〈聖學圖中心統性情圖〉(「坪菴集」 권2)
6. 姜碩慶(號 喫眠窩, 1666~1731, 尤菴宋時烈私淑)-〈退溪先生聖學

圖中第六心統性情圖>(「喫眠窩集別集」권2)

7. 李象靖(號 大山, 1710~1781)-「敬齋箴集說」(1750)
 8. 張福樞(號 四末軒, 1815~1900)-「夙興夜寐箴集說」(1866)
 9. 柳重教(號 省齋, 1832~1893, 華西 李恒老門人)-<題敬齋箴夙興夜寐箴二圖後>(1883, 「省齋集」권30)
- ㉔ 10圖에 대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주석
1. 許愈(號 後山, 1833~1904, 寒洲 李震相門人)-「聖學十圖附錄」(2권, 1903)
 2. 權胄煥(號 琴棲, 1825~1893, 定齋 柳致明門人)-<聖學十圖疑義>(「琴棲遺集」권4)
 3. 李彙寧(號 古溪, 1788~1861, 퇴계10대손)-「聖學十圖集說」(未確認)
 4. 金鍾昊(號 佩弦, 1874~?, 田愚門人)-「聖學十圖集註」(遺失)
(B)「聖學十圖」을 응용하거나 영향을 받은 圖象.
- ㉕ 「聖學十圖」전체의 체계적 응용
1. 金秉宗(號 秀山, 1871~1931, 西山金興洛門人)-「聖學續圖」(1917)
 2. 金棍(號 重齋, 1896~1978, 俛宇郭鐘錫門人)-「經學十圖」(1946)
 3. 李東榦(號 砧山, 1757~1822)-「聖賢心學四圖說」(1805)
 4. 李震相(號 寒洲, 1816~1886)-「心經竅啓」
 5. 李堯默(號 篁巖, 1809~1852)-<聖學圖十二帖屏說>(「篁巖集」)
 6. 李灑(號 星湖, 1681~1762)-<心統性情圖說>·<夙興夜寐箴說>(「星湖集」권41)
- ㉖ 「聖學十圖」과 간접적 관련을 갖거나 영향을 받은 것.
1. 李德弘(號 良齋, 1541~1596)-<心體用圖>·<爲學之圖>·<爲政之圖>(「良齋集」권7)
 2. 尹鑄(號 白湖, 1617~1680)-<帝舜人心道心之圖>3圖(「白湖全書」

권35)

3. 李象靖(號 大山, 1710~1781)-<心動靜圖>(「大山集」권39)
4. 安鼎福(號 順菴, 1712~1791)-<心圖>2圖 · <治心八藥圖> · <東銘圖>(「順菴集」권12)
5. 金興洛(號 西山, 1827~1899, 柳致明門人)-<入學5圖> · <敬齋箴集說圖>(「西山集」권13)
6. 權相翊(號 省齋, 1863~1934, 金興洛門人)-<仁心圖說>(1884, 「省齋續集」권5)
7. 宋浚弼(號 恭山, 1869~1943)-「四勿箴集說」(1934)
8. 許傳(號 性齋, 1797~1886)-<天民敬德圖>2圖 (1862, 「宗堯錄」권1)